

서울남대문RC, 국군수도병원에 황의정 작가(서울남대문RC)의 미술작품 2점 기증

서울남대문로타리클럽(회장 남연송)은 대한민국 군최고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에 유화 작품 두 점을 기증했다.

미술 작품을 기증한 로타리안은 화가인 서울남대문RC 황의정(MORISHITA TOMOMI)회원이다. 이전에 암예방에 대한 강연을 듣고자 국군수도병원의 유근영(국군수도병원의 병원장) 원장을 초청한 인연으로 서울남대문 로타리클럽에서 피아노 기증과 함께 피아노 연주의 음악회를 열어 장병들과 병원 직원 및 환우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음악의 청각적 예술에 미술의 시각적 예술을 더하면 더욱더 풍성한 예술을 경험 할 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수 있도록 필요성과 가치가 있다는 공감 하에 병원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화가는 미술작품 2점을 기증하기로 하고 병원의 발전과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날 미술작품 전달식에는 국군수도병원의 병원장 유근영 병원장을 비롯하여, 성상현, 이현민, 권동주, 이은하, 맹순주, 김관익, 허성욱, 신중욱, 남대문 로타리에서는 황의정(MORISHITA TOMOMI) 작가를 비롯해서 남연송, 김재호, 이성우, 이명선 등이 참석하였다.

국군수도병원 측에서는 황의정 작가에게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글. 서울남대문RC 봉사위원장 황의정



▲ 작품 앞에서 유근영 병원장과 황의정 작가



▲ 왼쪽에서부터 김재호, 이명선, 남연송, 유근영, 황의정, 이성우



▲ 병원의 간부들과 함께
◀ 국군수도병원 회의실에서



서울남산RC 창립 34주년 기념 및 송년주회 개최

영락애니아의집 휠체어 기증 및 피아니스트 서혜경 초청 연주 가져

서울남산로타리클럽(회장 서상준)은 12월 1일 (금) 제34주년 창립기념식을 하얏트호텔 1층 리젠시룸에서 개최하였다. 서울남산RC 39명의 회원과 21명의 영부인이 참석하였고, 서울RC 전회장 이성문 내외, 서울새남산RC 전회장 주원석 내외, 영락애니아의집 장은희 원장, 이항아 생활재활교사, 송실남산로타랙트 4명, 서울남산로타랙트 2명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창립기념식을 즐겼다.

제1부 기념식에서 서상준 회장은 이날 참석한 이항아 교사께 12년차 시상상을 하고 있는 백합상 및 부상과 함께 14년차 지원을 하고 있는 휠체어 기증서도 전달하였다.

또한, 2017년도 미스터남산으로 장승호 회원을 선정하였으며, 2019-20년도 회장으로 김관식 회원을 지명하였다.

제2부 축하연에서는 서상준 회장의 누님이자 카네기 선정 세계 3대 피아니스트이신 서혜경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고, 최홍석 사회자가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즐거운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3일(금)에는 부부동반 주회를 가졌다. 이날 주회에는 글로벌 보조금 사업(GG1747308) 후원사업 중 하나인 골룸반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다문화 및 AIDS 환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일랜드 출신 고명은 수녀님이 참석하여 다문화 및 AIDS 환자시설 운영에 필요한 4,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이날 부부동반 주회에는 35명의 회원들과 구자두, 황인수, 정희진, 김의재, 김연호, 이영호, 김영진, 이경훈, 서창우, 서상준, 김관식, 장승호 회원의 영부인 12명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서울SRS로타리클럽, 순국선열의 날 추모제 연주

서울SRS로타리클럽(회장 박명서) 합창단(서울로타리싱어즈)은 지난 11월 17일(금) '순국선열의 날 추모제' 연주를 위해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현충사에 모였다. 11월이지만, 야외공연이라 일찍 추워진 날씨가 몹시 걱정스러웠다.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추위를 제외하곤 우려했던 눈, 비, 바람 같은 큰 장애는 없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의 합창봉사임에도 회원 모두가 빠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줘서 SRS회원들의 봉사하고자 하는 맘이 더욱 빛나보였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은 더 많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는 합창단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추운 몸을 감싸 안고 가벼운 마음으로 충충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글. 서울SRS RC 김학자



서울북부RC 창립 22주년 기념주회 개최

서울북부로타리클럽(회장 지규상) 창립 22주년 기념주회가 지난 11월 29일 창동 하누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RC가 후원하는 정의여고 인터랙트클럽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부금을 전달했다.



서울북악RC, 고려대 로타랙트클럽과 함께 '성북구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방문, 김장김치 400kg 전달

서울북악RC(회장 김범생)은 지난 12월 2일(토) 본 클럽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장 400kg을 전달하였다. 김장김치 400kg을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려대 로타랙트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의 기쁨을 나누며 자리를 마무리 하였다.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이곳은 1976년 한국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으로 시작하여 성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는 곳이다.

본 클럽은 앞으로도 이곳에 꾸준한 관심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며, 고려대 로타랙트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로타리안의 모범적인 모습과 자부심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앞으로의 로타리안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아가페서울RC 문화주최, '내게 남은 사랑을' 영화 관람



아가페서울RC(회장 임오혁)은 지난 11월 18(토), 회원은 물론 가족, 지인들을 초대하여 문화주최를 개최, 40여명이 참석을 하여 "내게 남은 사랑을" 제목의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을 그린 영화는 회원들의 눈가를 축축이 적시었으며,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으로 '패밀리 투게더'를 실천하는 행사가 되었다.

임오혁 회장이 관람비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안무정 전회장 과 입회 예정인 유용준 회장의 협찬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동남RC 성동구청(150만원), 밀밭모자쉼터(50만원), 서일대학교(150만원)에 각각 성금 기부



서울동남로타리클럽(회장 박인)은 지난 10월과 11월중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10월 23일 성동구청에 150만원 성금을 지원했으며, 11월 6일에는 밀밭모자쉼터에 50만원, 11월 27일에는 서일대학교 장학발전기금으로 15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서울흥인RC, 자매클럽 도쿄우에노RC 방한 주회



서울흥인RC(회장 허진)은 지난 11월 17일 (금) 삼원가든에서 개최된 석간주회에 자매클럽인 일본 도쿄 우에노로타리클럽 회원 5명이 방문했다.

서울흥인로타리클럽의 조한창 전회장은 우에노클럽 오나가 회장의 가제출판사 75주년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다녀오셨고, 우리클럽에서는 축하 꽃을 전달하며 진심을 다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흥인RC에서 일본 우에노 클럽 방문을 약속하며 클럽간의 돈독한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행사를 마쳤다.